

중국이 한국과 핵포기, 안보, 통일의 삼위일체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한중선린우호협력조약 (中韩睦邻友好合作条约)' 을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함

'한중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주장

- 왕이웨이(王義桅)인민대 국제사무연구소 소장은 2014년 7월 시 주석의 방한 직전 중국 언론에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일이 서로 모순은 아니라고 주장함¹⁾
- 그는 중국이 한국과 핵포기, 안보, 통일의 삼위일체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한중선린우호협력조약 (中韩睦邻友好合作条约)' 을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함.
- 당시 왕 소장은 또한 중국의 주변을 둘러보면 북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파키스탄과 '선린우호협력조약' 을 체결하였으며, 남으로는 '중국-ASEAN 우호협력조약' 을 논의 중에 있는데, 유독 동쪽만 공적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함
- 따라서 '한중선린우호협력조약' 의 체결은 장차 중국의 북·서·남·동의 주변 외교 전략 포석의 완성을 뜻한다고 주장함.

한중동맹은 동북아 역사의 순리

- 리둔치우(李敦球) 前중국한국사연구회 비서장은 2014년 7월 시 주석의 방한이 끝난 직후 한중관계는 경제와 인문교류영역에서 이미 '동맹관계' 에 도달했거나 또는 초과하였다는 주장을 펼쳤다.²⁾
- 그는 역사상으로 본다면 중한은 일찍이 우호적인 동맹관계였으며 동북아의 안정을 공동으로 보호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현재 중국이 비동맹 대외원칙을 유지하므로 다른 국가와의 동맹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중한쌍방이 동맹의 의미를 내포한 양자관계를 갖추는 것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결론적으로 리둔치우는 양국 지도자가 중한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것은 현재의 역사 발전의 조류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중 동맹론

- 천딩딩(陳定定) 마카오 대학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중 동맹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³⁾
- 천딩딩은 한중동맹이 한미동맹을 대체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에 동의하는 한편, 더 나아가 중국은 이미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며 한국 경제 발전의 미래는 중국의 거대시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점과 만약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필연이라는 생각을 중국도 끌어안는다면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안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함
- 그는 현재로서는 중국도 북한을 버릴 수 없고, 한국도 안보문제를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나, 20년 후 미중관계가 지금과 달라진다면 한중 동맹 체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4. 결론

- 2014년 중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수면위로 부상했던 한중 동맹론은 이후 중국내에서 논쟁이 사라진 대신 중국 내에서는 뒤이어 "기조론(弃朝论)" 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짐.
- "방기조선(放弃朝鲜)", 즉 북한을 포기해야한다는 기조론과 북한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옹조론(拥朝论)" 의 논쟁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과연 북중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음.
- 즉,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중/북중 관계보다는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따라서 미중의 경쟁구도와 중일 갈등이 높아지고, 미일/한미 동맹이 강화된다면 중국은 전략적으로 북한을 포용할 수밖에 없음.
- 결론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군사/안보 동맹론' 이 아닌 '경제 운명공동체' 로의 논의 유도가 필요하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우호·발전관계를 증진하는 모습이 필요

20년 후 미중관계가 지금과 달라진다면 한중 동맹 체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홍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출판권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cpi.ajou.ac.kr>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CHINA WATCHING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中國政策研究所

한·중 동맹론 논쟁의 의미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2015. 9. 30 <제8호>

정책 제언

중국 한반도 전략 검토 과정의 실험적 제안에 대해 유연한 대응 필요

- 중국이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비동맹 원칙의 폐기와 한중 동맹론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강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성을 본다면 중국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對한반도 전략의 검토와 수정에 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리 논의를 일축할 필요는 없음
- 중국내 한중 동맹론의 논의는 만약 미·중의 이익이 동북아 지역에서 충돌한다면 한국의 중립을 바라는 중국 측 의지의 표현이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군사/안보 동맹론' 이 아닌 '경제 운명공동체' 로의 논의 유도가 필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군사/안보 동맹론' 이 아닌 '경제 운명공동체' 로의 논의 유도가 필요

한·미 동맹론 기초하의 중국과 우호협력 강화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THAAD를 한국 내 미군에 배치하려는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이 미·일 동맹과 한·미·일 지역안보 협력체제 확립 가능성으로부터 압박을 느끼는 요인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늘어난 모습
- 중국내 한중 동맹론은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 후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가라앉았으며, 당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일본 학자들과 미국 내 일본/동북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중국 경사론' 주장이 퍼져나가는 상황이었음
-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상황과 북한의 핵위협과 무력 도발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미동맹의 기초를 굳건히 하며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모습이 필요

한미동맹의 기초를 굳건히 하며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모습이 필요

중국의 新도광양회 전략과 신한중협력방안 필요

- 최근 미국의 경제력 회복과 '셰일 에너지 혁명' 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영향력 증가, 오바마-모디 정상 회담 이후 美·日·濠·印의 중국 견제 라인의 구체화 등 새로이 나타난 주변정황에 대응해 중국은 '新도광양회' 전략을 펼치고 있음
- 2014년 12월 미국에서 개최된 미·중 통상무역합동위원회에서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의 발언과 2015년 8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PF)에서의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과 같이 중국은 당분간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고 미국에 도전하지는 않겠지만, 자국의 핵심이익에 관해서는 강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는 2014년 11월 베이징 APEC에서 오바마-시진핑 회담에 이어 2015년 9월 말로 예정된 시 주석의 방미에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는 한중 동맹론보다는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를 통한 지역안정 협력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1) "王义桅：中韩可考虑缔结睦邻友好合作条约" 联合早报网 (2014년 07월 01일).
2) "专家：中韩结盟可能性不大 但不排斥同盟内涵" 环球网 (2014년 7월 5일)
3) Dingding Chen. "Is a China-South Korea Alliance Possible?" *The Diplomat*. (2014년 07월 08일)

문제 제기

1. 중국 주변 외교 전략의 배경

중국 주변 외교 전략의 배경

-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 현재의 시진핑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한국전쟁, 舊소련과 인도와의 국경 전쟁, 베트남과의 전쟁 등 주변국들과의 무력 충돌은 물론 95-96년 대만 해협 위기, 그리고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영토분쟁으로 대립하는 공격적인 면이 나타났었음
- 다른 한편으로 덩샤오핑은 강대국들 간의 전면적인 물리적 충돌은 한동안 없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 하에 개혁·개방을 선택하고 '도광양회' 외교 전략을 견지해왔음
- 덩과 장쩌민, 후진타오 등 그의 후계자들의 중국 주변 외교 전략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적인 주변 환경 조성에 그 초점을 맞추어왔음

시진핑 시대의 주변 외교 전략

- 최근 중국의 주변 외교 전략은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그간 유지해온 평화로운 주변 환경 조성을 여전히 근간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양강구도'의 국제체제에 대비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전이가 나타나고 있음
-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기존의 미중관계의 중요성과 더불어 주변국 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음
- 대국외교를 통해 자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을 존중받는 한편, 주변국 외교를 통해 지역 강대국으로 입지를 강화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외교는 그 범위와 적극성에 있어 가히 전면적이라 할 수 있음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3월 취임 이후 2014년 12월까지 한국, 몽골 등 동아시아 주변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남미, 유럽,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을 누비며 지금까지 10여 차례 걸쳐 출국해 30여 개국을 방문했음

2. 시진핑의 '중국특색의 대국외교' : 주변 외교 전략의 강조

주변외교 정책의 구체화

-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대국외교와 주변외교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외교, 다자간 외교 등으로 외교역량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2013년 10월 24-25일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 지도부의 '주변외교 공작 좌담회(周边外交工作座谈会)'에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 7명이 모두 참석함. 당시 친성혜용(親誠惠容)과 '운명 공동체'의 개념을 주창함
- 2013년 11월에 거행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외교'와 '접경 지역 교통인프라 투자'가 천명되었음

- 시진핑 지도부의 주변 외교 전략은 경제협력을 통해 주변국과의 우호관계와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려는 구상이며 이는 점차 구체화 되어왔음
- 대표적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신흥경제국들인 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개발은행 (New Development Bank, NDB)과 위기대응기금(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CRA)을 설립하고 있음.
- 2014년 11월 28-29일 북경에서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비롯해 당·정·군과 성, 직할시, 자치구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중앙외사공작회의'가 개최되었음
- 당시 시 주석은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변외교, 대국관계, 개발도상국간 단결, 외교다변화 추진 등 여섯 가지 외교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주변외교를 중국이 추구해야 할 중심 정책으로 강조하였음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변화

-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중 동북아시아에 관한 정책의 한 부분이며 지역 내에서 중국의 가장 큰 관심 국가는 일본임
- 하지만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지역안보 협력체제, 특히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상에서 한국을 이탈시키기 위해 중국은 한국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쳐왔음
- 이와 더불어 3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가 얼어붙고 영토와 역사 분쟁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자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진 상황임
- 하얼빈 역의 안중근 기념관과 시안의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건립,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에 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이 취임 이후 상호 국빈 방문을 포함하여 2년 여 사이 총 6차례의 회담을 진행하며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무역과 경제협력은 물론, 인문유대 교류강화, 외교안보 전략 채널 강화 등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음

3. 한중 동맹론의 등장

'兩端외교 (double alliance)'

- 엔쉐통(閻學通) 칭화대 당대국제관계 연구원장은 그의 저서 "历史的慣性" (2013)과 2014년 여러 학술회의에서의 발표를 통하여 중국은 향후 다가올 미·중의 양극체제에 대비하여 그간 견지해온 비동맹 원칙을 버려야하며, 미·중 경쟁에서 중국의 편이 되어줄 우방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1) 일본의 안보위협, 2) 북한 핵문제, 그리고 3) 동아시아 평화 유지를 한·중 공동의 3가지 안보이익으로 명명하며 이를 위한 한·중간의 동맹을 제안함
- 그는 한미동맹의 존재를 지적하며 한중동맹 체결의 현실성에 의문을 표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고려와 조선이 보여주었던 '兩端외교 (double alliance)'를 가리키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음
- 하지만 2014년 들어 그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한국인들이 '동맹'이란 용어에 거부감이 있다면 시 주석이 주창한 '운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선회하였음.

덩샤오핑은 강대국들 간의 전면적인 물리적 충돌은 한동안 없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 하에 개혁·개방을 선택하고 '도광양회' 외교 전략을 견지

평화적인 주변 환경 조성에 그 초점

대국외교를 통해 자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을 존중받는 한편, 주변국 외교를 통해 지역 강대국으로 입지를 강화

시진핑 지도부의 주변 외교 전략은 경제협력을 통해 주변국과의 우호관계와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려는 구상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상에서 한국을 이탈시키기 위해 중국은 한국에게 적극적인 구애

역사적으로 고려와 조선이 보여주었던 '兩端외교 (double alliance)'를 가리키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음